

무소속 현 군수 대 민주당 후보...선거전 벌써 ‘후끈’

장성군수

이번 선거는 무소속인 현직 유두석(68) 군수에 맞서 민주당 후보들이 어떤 전략을 구사하느냐가 관건이다. 당초 민주당 후보로 거론됐던 윤시석(57) 전남도위원과 김한중 전 전남도위원은 지난해 후보 단일화를 성사시켰다. 일찌감치 힘을 합해 무소속 군수에 대항하자는 전략이었다. 하지만 농협중앙회 농업경제 대표를 지낸 김수공(64)씨가 최근 선거전에 뛰어들면서 구도가 바뀌었다. 윤 의원은 당장 김 전 대표와 결선 진출권을 두고 일전을 겨뤄야할 상황이다.

장성군수 선거는 민주당 윤 의원과 김 전 대표 간 결선 승자가 현직인 무소속 유두석 군수와 맞대결을 펼칠 것으로 예상된다. 이들 입지자들은 예비후보 등록 전부터 출판기념회를 여는 등 뜨거운 선거전을 펼치고 있다.

유두석 현 군수는 무소속이다. 내년의 군수 선거를 거치면서 다져진 조직력과 높은 인지도가 강점이다. 국토교통부 고위 간부(2급) 출신인 유 군수는 풍부한 행정



유두석 군수



김수공 전 대표



윤시석 도의원

무소속 유두석 안정적 군정 이끌어 높은 평가

민주 윤시석·김수공 결선 진출 놓고 당내 경선

경험 그리고 중앙정부와의 강력한 네트워크를 기반 삼아 안정적으로 군정을 이끌어 지역민들로부터 높은 평가를 받고 있다. 또, 장성호와 황룡강 사이로 노란꽃을 심어 옐로우시티를 만들고, 매년 노란꽃 잔치를 개최하는 등 지역 자원을 특화해 장성을 전국적인 관광명소로 끌어올렸다는 평가다. 특히, 한국지방자치학회와 행정안전부의 후원을 받아 실시한 ‘2018년도

전국 지자체 평가’ 주민만족도 조사에서 전국 82개 농어촌 자치단체 가운데 10위를 차지하는 성과를 두기도 했다. 유 군수는 지난 10일 저서 ‘아름다운 귀향, 그 뒷이야기’ 출판기념회를 열어 그동안 하고 싶었던 말들을 전하고 눈물 어린 경험을 쏟아내기도 했다.

도의원 3선인 윤시석 의원은 전남도의회 부의장·예결위원장·운영위원장 등 요

직을 두루 거치며 지방자치와 행정 역량을 쌓았다. 전남도의회 민주당 원내대표로 당내 입지도 탄탄하고, 지역 내 인지도에서도 뒤지지 않는다는 분석이다. 윤 의원은 11일 저서 ‘장성도박이, 희망을 말하다’ 출판기념회를 열었다. 그는 고향 장성에서 나고 자라며 3선 도의원이 되기까지의 성장 과정과 의정활동의 성과, 군민과 도민을 섬기며 봉사하는 삶 이야기를 담담하게 전했다.

김수공 전 대표는 지난 8일 기자회견을 열어 군수 선거 출마를 공식화했다. 그는 여는 입지자들처럼 출판기념회를 계획했다가 갑자기 취소했다. 잇단 출판기념회는 선거전을 과열시키고, 지민들에게도 부담을 지운다는 이유에서다. 김 전 대표는 ‘개혁군수, 경제군수’를 내세웠다. 그는 “‘장성다운 장성’은 장성이 가지고 있는 역사적·환경적 비교우위 자산을 심본 활용해 스마트장성, 부자장성, 행복장성을 건설해 5만 군민이 더불어 행복한 장성공동체를 실현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정욱기자 jwpark@kwangju.co.kr
/장성=김용호기자 yongho@

지역민 갈등·반목 치유하는 선거 될까

장성 지역민들은 그동안 네차례 군수 선거를 치르면서 쌓인 갈등과 반목, 편 가르기가 이번 선거를 통해 말끔히 치유되기를 바라고 있다.

갈등과 반목은 유두석 현 군수와 김양수 전 군수가 일진일퇴하는 과정에서 커졌다. 유 군수는 이번 선거가 사실상 다섯 번째다. 앞서 3번의 선거에서 김 전 군수와 맞붙었다. 전직은 2승 1패. 이번 선거에서 네번째 맞대결이 예상됐지만 김 전 군수가 출마의 뜻을 접으면서 갈등·반목을 해소할 수 있는 기회가 열린 것이다.

이 때문에 더불어민주당 후보 출사표를 던진 윤시석 전남도위원과 김수공 전 농협중앙회 농업경제 대표는 일성으로 ‘소통과 화합’을 부르짖었다.

민주당 경선도 눈여겨봐야 한다. 민주당은 이번 선거에서 승리해 문재인 대통령-이낙연 국무총리-이재호 국회의원-민주당 군수로 바통을 이어 합치는 장성

을 만들어야 한다는 분위기다.

실제 윤시석 도위원과 김한중 전 도의원은 ‘후보 단일화’를 했다. 하지만 본격 선거전을 앞두고 김수공 전 대표가 민주당 후보 경쟁에 뛰어들면서 선거구도가 전면 재편됐다. 잡음 없이 어떻게 후보를 결정할 지 주목된다.

무소속 현직 군수와 민주당 후보 간 승부도 관심사다. 장성은 광주·전남에서 유일하게 민주당 현역 국회의원이 있는 지역이다. 장성을 비롯해 담양·함평·영광을 지역구로 하는 이재호 의원이자

이다. 2회 지방선거에서는 김홍식 전 군수, 4회엔 유두석 군수가 무소속으로 당선됐다. 이어 2007년 재보궐선거에서 이정 전 군수, 6회 유두석 군수가 또다시 무소속으로 당선됐다.

/박정욱기자 jwpark@kwangju.co.kr
/장성=김용호기자 yongho@

현 군수 3선 가도에 도의원 등 9명 도전...후보 난립

진도군수

진도군수 선거 열기가 뜨겁다. 바로 옆 완도군에서는 현 신우철(65) 현 군수의 단독 입후보가 예상되면서 선거전이 싱거워졌다는 평가가 벌써부터 나오지만 무려 10명의 후보자가 난립했다.

3선을 노리는 이동진(73) 진도군수에 맞서 무려 9명의 후보자가 도전장을 던졌다. 지역에서는 경우에 따라 후보자 1~2명이 더 선거판에 가세할 가능성도 점치고 있다.

정당별로 보면 더불어민주당 소속으로는 이 군수, 박연수(70) 전 진도군수, 주선중(71) 진도군의원, 박인환(68) 선거관리위원회 전 부이사관 등 4명의 후보자가 뛰고 있다. 민주당 경선부터 전·현직 군수의 리턴매치가 펼쳐질 예정이다.

민주평화당은 가장 많은 후보를 보유하고 있다. 이양래(61) 전 진도읍장, 장일(62) 전남도의원, 한기민(62) 전 목포경찰서장, 하영규 전 육군 52사단 헌병대장(중령) 등 4명의 후보가 경선을 뚫고 본선 진출을 노린다.

김희수(63) 전 진도군 농산물유통과장, 오판주(64) 전 진도군 진도읍장은 무소속으로 출사표를 던졌다.

이 군수는 전남개발공사 사장 등을 지낸 전문경영인 출신으로 재임기간 군정을 안정시키고 낙후된 지역경제 회복에 적극 나섰다. 이 군수는 그러나 3선에



이동진 군수



박연수 전 군수



박인환 전 부이사관



주선중 군의원



이양래 전 읍장



장일 도의원

후보자 1~2명 더 가세 가능성

민주경선 전·현군수 리턴매치

대한 거부감, 고령인 점이 약점으로 지목된다. 민주당 내에서는 민선 4기 진도군수를 지낸 박연수(70) 전 진도군수가 현 이 군수에 대한 강력한 대항마로 꼽힌다.

재선의 주선중(71) 군의원은 풍부한 의정활동 경험과 30여년에 걸친 공직생활을 통해 축적된 지역 현안에 대한 높은 이해와 인맥을 바탕으로 군수에 도전한다.

선관위 고위 공직자 출신의 박인환(68) 전 부이사관이 민주당 경선에 뛰어들면 점도 눈에 띈다. 박 전 부이사관은 진도실고 3학년 당시 9급 공무원 시험에 합격해 선관위 7급 공채를 통해 옮겨가기 전까지 16년간 진도에서 공무원 생활을 했다는 점을 강조



한기민 전 서장



하영규 전 헌병대장

하며 민심을 파고들고 있다.

민주당 못지않게 민주평화당 경선도 불꽃 튀는 접전이 예상된다. 이양래(61) 전 진도읍장과 장일(62) 전남도위원은 각각 풍부한 행정경험과 의정활동을 통해 다져진 지역 현안에 대한 높은 이해와 촘촘한 인맥을 기반으로 경선에 이어 본선 승리를 자신하고 있다. 한기민(62) 전 목포경찰서장 역시 공직 경험과 고향에 대한 애정을 바탕으로 일찌감치 고향에 내려와 바둑 민심을 훑고 있다. 학사장교(ROTC) 출신의



김희수 전 과장



오판주 전 읍장

하영규(58) 전 육군 52사단 헌병대장(중령)도 민주평화당 경선에 참여한다.

무소속 김희수(63) 후보는 36년간 진도에서 공직생활을 하며 전체 7개 읍·면 가운데 4곳에서 읍·면장을 지냈다. 이 기간 쌓인 인맥과 인지도 등을 바탕으로 군수 선거에 도전한다. 오판주(64) 전 진도읍장 역시 30여년간의 공직생활을 통해 갖고 닦은 행정경험, 지역 현안에 대한 밀도 높은 이해를 무기로 군수 선거에 임하고 있다.

/진도=박현영기자 hypark@

민주당 텃밭이나 박지원 텃밭이나

박지원 의원 영향력 막강

민주 경선=본선 아니다

10명의 후보자가 난립한 진도군수 선거는 전남의 다른 기초단체장 선거와 달리 더불어민주당 경선이 곧 본선이라는 공식이 깨질 공산이 크다.

호남이 민주당 텃밭이라고는 하나, 진도는 곧 ‘박지원 텃밭’이라는 정서가 광범위하게 펼쳐진 지역이기 때문이다.

이를 반영하듯 무소속 2명을 제외한 8명의 후보자는 각각 절반씩 민주당과 민주평화당 간판을 달고 군수 선거에 출사표를 던졌다.

민주당 소속 후보자 4명이 경선을 통해 단일 후보자를 내더라도 민평당 단일 후보자와의 진검 승부가 불가피하다는 게 대체적인 민심이다.

선거전에 뛰어든 입지자 상당수도 “민주당 경선이 곧 본선이라는 공식은 진도에서는 통하지 않는다.”

진도군은 본래 진도 출신인 민주평화당 박지원 의원의 정치적 영향력이 막강한 곳이어서 사실상 민주당과 박지원

의 대결로 보는 사람들이 많다”고 전했다.

박 의원이 공직생활·의정활동을 하면서 고향인 진도 발전에 앞장섰다는 평가가 널리 퍼졌고 그의 정치적 성공을 바라는 민심이 여전한 탓에 진도군수 선거 판세가 박 의원의 입김에 따라 요동칠 수밖에 없다는 게 후보자들의 대체적인 분석이다. 사실상 진도군수 선거는 ‘민주당과 박지원 의원의 싸움’이라는 것이다.

10명의 후보자가 난립한 배경도 흥미롭다.

후보자들은 대체로 ‘현 이동진(72) 군수가 약체’라는 평가를 내놓으면서 저마다 ‘해결 만한 싸움’이라는 인식을 드러내고 있다. 후보자 대다수가 진도를 기반으로 오랜 기간 공직생활을 했고 이를 바탕으로 다진 인맥·인지도·조직력을 자랑한다는 점도 눈에 띈다.

10명의 후보자가 난립한 데 대해서도 후보자들은 “진도군에 인물이 많은 것 아니냐”는 입장이다.

/진도=박현영기자 hypark@
/김형호기자 khk@kwangju.co.kr

착한보청기

보청기

무료 체험

직접 체험 후 결정!!

✓ 잡음없이 깨끗한 소리 ✓ 웅웅~ 울리지 않는 보청기

062) 655-6544 (광주 남구 진월동 252-4 우리은행건물 3층)

의료광고심의일 제 170713-종-83334호

100세 시대 무릎 건강! 무릎 퇴행성 관절염 치료는?

무릎의 통증의 시작은 무릎 내부의 관절 연골판 손상에서 시작됩니다. 이후 관절연골 손상이 되어 안쪽이 닳아지면 간격이 줄어들면서 오다리 변형이 됩니다. 결국, 오다리 변형을 일차다리로 수술하는 것이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많은 현대인들의 고질병 허리디스크! 내시경으로 절개없이 해결 가능?

비수술적으로 대부분 치료 가능합니다. 비절개로 어깨나 무릎처럼 양측 삽입구를 통한 일반 내시경 수술로 디스크 치료가능합니다.

김지현

세심한 검사! 정밀한 진단! 가족같은 곳!

첨단우리병원

비수술, 부분마취, 척추·관절 치료!

대표전화 | 062) 970-6000 광주 과학기술원 첨단 쌍암 공원 앞 위치!